

程度副詞에 대한 一考察

— 平安初期의 作品을 中心으로 —

이 창 익

(인문대 일어일문학과)

〈 차 례 〉

1. 머리말
2. 中古時代의 대표적인 程度副詞
3. 程度副詞에 수식된 용언의 품사에 대하여
4. 程度副詞에 수식되는 용언의 의미
5. 새로운 程度副詞
6.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는 平安時代의 和文作品(物語)중 〈程度副詞〉라 불리우는 語彙群에 대하여 조사·고찰한 것이다. 程度副詞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그 설명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해설¹⁾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山田孝雄によって分類され、一般化した副詞の名稱の一つ。それ自身は屬性を表すことなく、情態性の屬性の程度を示すもの。情態の意を持つ用言および情態副詞の上にあつて、その屬性を限定する機能をもつ。「かなり遠い所」の「かなり」は遠さの程度を示す。このように屬性を限定するゆえに、下の語がどのような用法に立っても用いられる。たとえば、「かなり遠い」「かなり遠く見える」「かなり遠ければよい」のように。程度副詞は、形容詞、形容動詞の上立つことが多い。例.いと美し/はな

1) 松村明 編, 『日本文法大辭典』所收, 明治書院, S57, p.518

はだ静かなる夜/もっと早く歩け/ごく近い所/よほど苦しいらしい/きはめて健康だ/ちょっとおかしい/たいへん正確だ/ずいぶん遠いね. また, 方向, 場所, 時間, 數量など, 空間的・時間的にあるひろがりの程度を限定することがある. 例, ちょっと右へ寄れ/もっと遠方からきた/ずっと昔の話/やや東の方/かなり右寄りの所/もう一時間待って下さい. なお, 情態副詞の上について, その情態の程度を修飾限定することがある. 「副詞を修飾する副詞」というのが, これである. 例, ちょっとゆっくり歩け/もっとしっかり書きなさい/ずっとはっきり見える/ややしばらくたって/かなりゆっくりやっている/ずいぶんきらきら光る. 情態副詞と同様に, 動詞を直接修飾することもある. つまり, 動作の程度を限定するのである. 例, かなり努力した/もっと勉強しろ/やや疲れる/ずいぶん歩いた/ちょっと出かける. また, 「の」を伴って連體修飾語になることもある. 例, かなりの時間/よほどの事がなければ. この場合いわゆる副詞の定義からはずれたことになり, 問題がある. 「非常に」「きはめて」「いたって」なども程度副詞とされるが, 一語と考えるべきかなど問題は多い.

이 정의를 토대로 程度副詞는 그것을 취급하는 연구 논문 가운데, 森重敏氏の 『日本文法通論』에서 「程度量副詞の設定」을 토대로 다섯개의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면, 松井榮一氏の 논문중에

- (1) 程度が竝よりはるかに大であることを表わす「はなはだ, すこぶる」の類
- (2) (1)ほどではないが, それに近い程度を表わす「かなり, 大分, 随分」の類
- (3) 程度が小であることを表す「すこし, いささか, ちょっと」の類
- (4) 程度の累加, 他と比較して程度が上であることを表わす「もっと, ずっと, いっそう」の類
- (5) 同類中で程度が最高であることを表わす「もっとも, いちばん」の類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1)(2)(3)에 대하여만 취급하기로 한다.

平安時代の 대표적인 程度副詞에는, 「いと, いみじく, いたく」,

2) 원래 형용사로서, 「肉體が傷つき損なわれ痛むさま」라는 의미였고, 이것이 변하여 「心が肉體が傷つき損なわれ痛むようにそのようなさまである」라고 되었다.

少し, やや」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어휘의 성립 과정이나 쇠퇴 혹은 소멸에 관하여 쓴 논문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 어휘 사이에 어떤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거의 없는 듯하다. 이 程度副詞 하나하나의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한 조사가 본 논문의 취지이다. 「程度副詞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형용사, 형용동사의 연용형 혹은 복합어라 불리는 어휘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의 時期는 平安時代 前期(中古時代 初期)이다. 「源氏物語」성립 이전의 作り物語, 歌物語, 日記중에서 대표적인 8개의 작품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 *『竹取物語』小學館「日本古典文學全集」
- *『土佐日記』上同
- *『伊勢物語』上同
- *『大和物語』上同
- *『平中物語』上同
- *『蜻蛉日記』上同
- *『落窪物語』上同
- *『篁物語』岩波書店「日本古典文學大系」

2. 中古時代의 대표적인 程度副詞

平安時代 前期의 和文作品속에 나타나는 程度副詞에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볼 수 있다.

- (1)京のうれしさのあまりに、歌もあまりぞ多かる(土佐)
- (2)燕尾をささげて、いたくめぐるに合はせて、手をささげてさぐりたまふに(竹取)
- (3)いと清げに寢殿作りて、よき日して呼び給ふ(篁)
- (4)かくて九日、いといといかめしうし果てたまふ(落窪)
- (5)いともいとともいとほしく、夜一夜惱ませたまひけることをなむ()
- (6)ある時は、いはむかたなくむくつけげなる物來て、食ひかからむとし

키(竹取)

- (7) いふかたなう心愛しと思へども、なにわぎをかせむ(蜻蛉)
- (8) 聞きしよりもまして、いふかひなくぞこぼれ破れたる(土佐)
- (9) 顔かたちいみじう清らにて、人人よばひ、殿上人などもよばひけれど、あはざりけり(人和)
- (10) 侍ふ人人も、いらなくなむ泣きあはれがりける(〃)
- (11) 男は、かぎりなく憂じて、そのままのものいはず(平中)
- (12) 昔、男女、いとかしこく思ひかはしてこと心なかりけり(伊勢)
- (13) その心ばへ、ただ、きはめて幸ひなかりける身なり...(蜻蛉)
- (14) 「藤氏の、ことに榮ゆるを思ひてよめる」となむいひける(伊勢)
- (15) この男のすみけるんあひだに、こよなうまさりたる人などに、もの聞ゆる氣色見えたり(平中)
- (16) 初めよく御覽じつれば、類なくめでたくおほえさせたまひて(竹取)
- (17) かくて、たとしへなく思ひかしづききこえたまふ(落窪)
- (18) この女はになくかしづきて、みこたち、上達部よばひ給へど...(大和)
- (19) 「今日、風雲の氣色はなはだ悪し(土佐)
- (20) 「やすき空なく思ふべかめり」と、かしこまりをはなはだしうおきたれば、つややかなることば(蜻蛉)
- (21) この三君を、また二つなくもてかしづき奉る(篁)
- (22) 「またなうねたくいみじきことこそなかりつれ(落窪)
- (23) 世にあうことかたき女になむ(伊勢)
- (24) さて、またの夜の、月世に知らずおもしろきに、よろづのことおほえて(平中)
- (25) 「あれはさこそあれ。それが憂きこととて、よになくあさましきことを、作りいだしつ...(〃)
- (26) さて、かぐや姫のかたちの、世に似ずめでたきことを、帝門こしめして、内侍中臣のふさ子に...(竹取)
- (27) 十三日の曉に、いささかに雨降る(土佐)
- (28) 「いとただらむよりは」とて、「しるしばかり物書きつけたまへ」と申したまへば、女君...(落窪)
- (29) すこしなれゆくままに、顔を見え物語などもして...(篁)
- (30) 頼、氏鳥の尾の中に入りこみて、日の脚のわづかに見えて、霧どころどころに晴れゆく(蜻蛉)3
- (31) 宵は遊びをりて、夜ふけて、やや涼しき風吹きけり(伊勢)

는(이하 謙しさ大로 쓴다) 程度副詞이고, (27)~(31)이 작음을 나타낸다(이하 謙しさ小로 쓴다). '謙しさ大'가 '謙しさ小'보다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덧붙여, 松井氏가 현대의 程度副詞로서 예로 들고 있는 「すこぶる、かなり、大分、随分」은, 본 논문의 텍스트에는 한개의 용례도 없었다. 「はなはだ」는 「土佐日記」에, 단 1例만 볼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謙しさ小'인 「すこし、いささか」는 中古時代에도 많이 볼 수 있다. 中古時代の '謙しさ小'의 例인 「いささか、しるしばかり、すこし、わづか」는 현대에서도 잘 사용되는 것인데, '謙しさ大'에 속한 것은 현대 용법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이 보인다. '謙しさ小'인 것이 '大'보다 많지 않은 종류의 어휘가 中古時代부터 現代까지 불변적으로 계승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謙しさ大'에 속한 어휘는 많은 종류가 새로 생겨났다가 사라져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각각의 어휘에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조사하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의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2)あさましうおかしけれど、つゆばかり笑ふ氣色も見せず(蜻蛉)
 (33)いとはなやかならざらむ女の、物思ひ知りたらむが、かたちをかしげならむこそ(落窪)
 (34)「もし、人給はば、取らせよ」とて、これらむ給ひ置きたる」いささかなる文ぞある(半中)
 (35)「いといふかひなきゆざをなむしたまひたる」(落窪)
 (36)足を空にふみて、車に歸り乗りて、ねたういみじう思ふこと限りなし(〃)
 (37)昔、かしこき天竺の聖、この國に持て渡りてはべりける...(竹取)
 (38)つねにきこゆるやうに、世に久しきことのいと思はずなれば...(蜻蛉)

(32), (33)처럼, 부정어를 동반하여 「少しも-ない」「あまり-ない」의 의미가 되는 것과 (34), (35)처럼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것, 「日本文法大辭典」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程度副詞도 넣고 있는데, 조사의 편의상, 용언을 수식하는 것 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용례 (24), (25), (26) 등은 체언수식이지만, 「おもしろし、あさまし、めでたし」로 생각하여 용언으로 처리했다.

(36), (37), (38)의 「いみじう、かしこし、世に」는 엄밀하게 말하여 각각 程度副詞라고는 말할 수 없다. 수식하는 용언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 語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의미를 짚게 나타내고 있다. 程度副詞의 성쇠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에는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謙しさ大'인 1671例, '謙しさ小'인 114例를 모았고 표1-①, ②로 나타내었다. 표1속의 空欄부분은 1例도 없음을 나타낸다. 용례수는 總語數이다.

그런데 여기에 「いらなく」가 『大和物語』 가운데 2例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례(10)인 1例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2例를 포함시킨 것은 「いらなく」가 수식한 「泣きあはれがる」를 「泣く」와 「あはれがる」로 나누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표에 표시한 숫자는 程度副詞에 수식된 용언의 숫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다른 예를 보면,

(39)「さはむ申す」と聞えければ、さにやあらむと思ふに、いとあやしうも
をかしようもおぼえ給ひけり。(大和)

(40)事おこなひありきたまへば、中納言いと面立しく、うれしくて、老い
心地に涙をうち落して、喜びあたり。(落窪)

등에서도 「いと」는 「あやし」와 「をかし」의 양쪽 용언을 다 수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용례(40)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이다. 이 논문은 程度副詞에 수식된 용언에 대하여 중복을 염두에 둔 조사이기 때문에 이 수를 그대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용례는 적으므로 程度副詞의 용례수를 나타낸 것과는 큰 차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표1-① 작품에 나타난 용례 語數

程度副詞 \ 作品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草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合 計
あまり		1							1
いたく	6	5	9	17	6		27	25	95
いと	31	18	61	187	49	23	414	597	1380
いといと								4	4
いともいとも								3	3
いはむかたなし	1							1	2
いふかたなし							8		8
いふかひなし		2					3	3	8
いみじく	6		3	17	10		41	76	153
いらなく				2					2
かぎりなく	1		4	19	1		2	20	47
かしこく	2	1	3	4			1		11
きはめて							1		1
ことに			2	1			2	2	7
こよなく					1		1	5	7
たくひなく	1						1	3	5

표1-② 작품에 나타난 용례 語數

程度副詞 \ 作品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草 物 語	蜻 蛉 物 語	落 窪 物 語	合 計
たとしへなく								1	1
になく				7					7
はなはだ		1							1
はなはだしく							1		1
ふたつなく						1		1	2
またなく							2	3	5
よに			1	1			1	1	4
よにしらず					3				3
よになく					2				2
よににず	1								1
いざさか	1	3			2	1		4	11
少し	6	2	3	4	5	2	22	42	86
しろしばかり								1	1
はつかに	1				1		6	2	10
やや			2				3	1	6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誾しさ大'의 그룹에서는 「い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전체의 82%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 즉 中古時代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程度副詞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いみじく」, 「いたく」, 「かぎりなく」이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かしこく」가 0.66%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かぎりなく」까지의 4례가 中古時代の 대표적인 程度副詞라고 말할 수 있다.

'誾しさ小'를 보면 「すこし」의 점유율이 75%이상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いささか」, 「はつかに」가 된다. 용례를 모을 때 많이 눈에 띄는 「いささか」는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이 숫자에 불과하였다. 한마디로 '誾しさ小'인 程度副詞는 '誾しさ大'에 비하여 異語數도 적고 總語數도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いと」, 「すこし」는 對象作品 모두에서 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いたく」는 『篋物語』에서는 볼 수 없었고 「かぎりなく」, 「いみじく」인 경우 『土佐日記』, 『篋物語』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 두개의 작품은 단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いみじく³⁾」가 1例도 없는 것은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비교적 장편인 작품인 『大和物語』, 『蜻蛉日記』, 『落窪物語』에는 당연히 많은 용례가 보였다. 그러나, 다섯개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かしこく」가 『落窪物語』에는 1例도 없는 것이라든가, 「いささか」가 『蜻蛉日記』에 없는 것도 의외인 느낌이 든다. 『大和物語』에 '誾しさ小'인 「すこし」가 1例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 하다. 어휘의 성쇠라기 보다는 작자의 의도가 그것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쪽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합계 20例로 가장 많은 程度副詞를 사용한 것은 역시 장편인 『落窪物語』이다. 『竹取物語』가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11例나 사용되고 있고 『大和物語』의 10例를 넘어서고 있다. 『篋物語』는 4例밖에 없고 『竹取物語』에는 꽤 많이 반영되었지만, 장편작품에는 많은 종류의 程度副詞가 사용되고 있다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 작품에 한하여 다수 사용된 예로서는 『大和物語』의 「になく」,

3) 「いみじ」는 平安時代에서 女流假名文學에 한하여 사용되었다.

『蜻蛉日記』의 「いふかたなく」가 눈에 띈다. 「いふかたなく」가 수식하는 용언은 동사 3例, 형용사 4例, 형용동사 1例로 모든 품사에 접속한다. 게다가 수식되는 용언이 주는 이미지가 좋은 어휘쪽으로 붙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붙기도 하면서 사용하므로 작자인 道綱의 어머니의 입장으로서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므로 표현하기 쉬운 程度副詞였을 것이다. 「になく」가 7例 모두 동사에 접속해 버리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落窪物語』는 「いといと」, 「いともひとも」등 重複形 程度副詞를 잘 사용하는 듯 하다. 『平中物語』에는 「よにしらず」, 「よになく」등 「世に-」라고 하는 型の 특징이 있다. 「世界中の何によりもだれよりも-だ」라고 하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천하의 色漢(いろこのみ)이라 불리우는 貞文다운 표현이다. 『土佐日記』는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あまり」, 「はなはだ」라고 하는 독창적인 程度副詞를 사용하고 있다.

3. 程度副詞에 수식된 용언의 품사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程度副詞가 수식하는 용언을 품사별로 본다. 「いと」가 수식하는 용언에 대하여 용례를 보면,

- (41)むかし、男ありけり。東の五條わたりに、いと忍びていきけり(伊勢)
- (42)その家の前に、さくらのいとおもしろくさきて、春のはてがたにやありけむ(平中)
- (43)いと清げに寢殿作りて、よき日して呼び給(笠)
- (44)「はかばかしからぬ女子どものいとあまた侍べる...」(落窪)

(41)이 동사, (42)가 형용사, (43)이 형용동사, (44)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이같이 程度副詞에 수식된 용언 모두를 작품별, 품사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程度副詞에 수식된 용언

『竹取物語』

- 「いたく」 苦しがる、(化粧)す、泣く、めぐる、喜ぶ、わぶ
「いと」 あはれがる、忍ぶ、ふくる、率いる、うつくし、多し、重し、
難し(かたし)、心苦し、尊し、う遠し、恥し、まさなし、易
し、良し、弱し、悪し、をさなし、大ぎ、清ら、甚へがたげ、
いたく、かしこく
「いはむかたなく」 むくつけげ
「いみじく」 なく、よろこぶ、しずか、嘆かしげ
「かぎりなく」 おもしろし
「かしこく」 遊ぶ、たばかる
「たるいなく」 賞づ
「世に似ず」 めでたし
「いささか」 なむ
「すこし」 包む、残る、光る、うれし、良し、あはれ
「はつかに」 兄ゆ

『土佐日記』

- 「あまり」 多し
「いたく」 悩む、誇る、賞づ、喜ぶ
「いと」 賞づ、悪し、難し、心細し、辛し、長し、似つかはし、大聲
なり、思ひの外なり、よく、いたく
「いふかたなく」 二ばれる、破る
「かしこく」 嘆く、
「はなはだ」 わるし
「いささか」 書きつく、降る
「すこし」 なく、よろし

『伊勢物語』

- 「いたく」 あはれがる、うちなく、恨む、思ひわぶ、心やむ、泣く、
降る、賞づ
「いと」 あはれがる、しのぶ、なまめく、暑し、うしろめたし、うる
はし、うれし、おもしろし、悲し、愛し、暗し、心もとなし、
白し、高し、尊し、辛し、情けなし、恥かし、久し、細し、
めでたし、もの悲し、若し、大ぎ、清ら、ねむごろ、まめ、
をかしげ、とく、よく、いたく、かしこく、いみじく

- 「いみじく」 恨む、泣く、なる(雷)
 「かぎりなく」 うれし、愛し、遠し、めでたし
 「かしこく」 思ひ交はす、恵む、をかしがる
 「ことに」 おもしろし、榮ゆ
 「よに」 難し(かたし)
 「すこし」 たのむ、はるかす、吹く
 「やや」 涼し、もの悲し

『大和物語』

- 「いたく」 あはれがる、うち嘆く、老う、かしづく、懸想す、化粧す、なきさわぐ、泣く、更く、降る、待ちイ宅ぶ、漏る、患ふ
 「いと」 あはれがる、重る(病)、興あり、忍ぶ、よしづく、らうあり、あさまし、悪し、あやし、いみじ(たいへんな)、いみじ(忌)、生き難し、いとほし、憂し、うつくし、うとまし、うれし、恐し、多し、重し(病)、おもしろし、香ばし、かしこく、悲し、心憂し、心もとなし、心細し、心よし、心をかし、濃し、戀し、騒騒し、寒し、尊し、近し、小さし、はかなし、はしたなし、恥かし、久し、みじかし、むくつけし、難し、胸痛し、めでたし、易し、ゆかし、良し、弱し、らうらうじ、若し、わびし、わりなし、わるし、をかし、あだなり、いろこのみな、あはれ、うつくしげ、おそしげ、かすか、清げ、清ら、せち、憎げ、みそか、ゆるげ、をかしげ、よく、いたく、いふかひなく、いみじく、かぎりなく、かしこく、になく
 「いみじく」 あはれがる、いたはる、行ふ、騒ぐ、さはぎののしる、泣きまどふ、泣く、喜ぶ、らうあり、酔ふ、あやし、おもしろし、悲し、清ら
 「いらなく」 泣く、あはれがる
 「かぎりなく」 あはれがる、契る、賞づ、喜ぶ、明し、悲し、ねたし、深し、めでたし、わびし、心憂し、あはれ
 「かしこく」 思ひ嘆く、好む、賞づ、喜びあふ
 「ことに」 にほふ
 「になく」 思ひ交はす、かしづく、懸想す、(よはなき)す、想づ
 「よに」 いみじ
 「すこし」 おこたる、かいわがぬ、晴る、遠し

「平中物語」

「いたく」 あはれがる、いとほしがる、恨む、口惜しがる、慎む、降る

「いと」 忍ぶ、上衆めく、をかしむ、明し、あさまし、悪し、あやし、愛し、多し、おもしろし、難し、口惜しがる、くまぐまし、心愛し、心細し、高し、近し、長し、久し、まがながし、もの心細し、ものはかなし、良し、をかし、あはれ、つれづれ、のどか、みそか、むららか、あまに、よく、いたく

「かぎりなく」 憂ず

「こよなく」 まさる

「よにしらず」 慎む、おもしろし、心愛し

「よになく」 (心地)す、あさまし

「いささか」 言ふ、け近し(儀式ばらない)

「すこし」 遅る、暮る、たち遅る、ほく、まさる

「はつかに」 聞こゆ

「いみじ」 あたむ、あらがう、言ふ、恨む、騒ぐ、制す、ののしる、もみじたる、おもしろし、愛し

「篁物語」

「いと」 忍ぶ、明し、あるべかし、いかめし、おぼんつかなし、いみじ、かしこし、悲し、口惜し、もの騒がし、若し、ゆるし、をかし、あぎやかし、清げ、ねんごろ、よく

「ふたつなく」 もてかしづく

「いささか」 あり

「すこし」 心ゆく、訓る

「蜻蛉日記」

「いたし」 かしこまる、暮るる、氣色ばむ、しほなう、(咳)す、(長雨)す、つくろふ、泣く、鳴る(雷)、似る、はばかる、はらめく、更く、降る、獲す、思う

「いふかたなし」 暗がる、(垂れ)す、降る、重し(病)、悲し、心愛し、をかし、心細げ

「いふかひなし」 ゆろし、情けにげ、幼げ

「限りなく」 うれし、めやすし

「かしこく」 喜ぶ

「いと」 あざる、忌む、木暗らがる、さだむ、忍ぶ、慎む、ねじく、

ののしる、(胸)色がる、勝る、或ふ、勞あり、らうたがる、
 明し、あさまし、悪し、あやし、芒し、あるべかし、あわた
 たし、いかめし、(胸)痛し、いちはやし、言ふ甲斐なし、い
 みじ(たいへん)、いみじ、憂し、うしろやすし、うら若し、
 うるさし、嬉し、恐し、おどろおどろし、おどろし、多し、
 おほけなし、おぼつかなし、かしがまし、かしこし、難し、
 かたじけなし、かたはらいたし、悲し、甲斐なし、からし、
 聞きにくし、口惜し、暗し、苦し、けうとし、心あわたた
 し、心すごし、心狭し、心細し、心もとなし、心やすし、心
 よし、言よし、戀し、寒し、騒がし、しげし、死に難し、し
 らじらし、知らまほし、白し、少し、せむかたなし、高し、
 たとしへなし、怠怠し、尊し、近し、力なし、小さし、つき
 づきし、つべたまし、罪探し、辛し、つれなし、遠し、長し、
 情なし、なつかし、なやまし、憎し、ねたし、飲ままほし、
 はかなし、はげし、はしたなし、恥づかし、早し(風)、腹立
 たし、春寒し、久し、便なし、深し、ふるめたしほそし、
 ほどせまし、まがまがし、まばゆし、みぐるし、めづらし、
 ものめでたし、めやすし、もどかし、ものかなし、ものぐる
 ほし、もの騒がし、ものし、ものはかなし、ものむつまし、
 やんごとなし、ゆゆし、よし、らうかし、わびし、わりな
 し、わりなし(不條理)、をかし、小暗し、幼し、あてはか、
 あはれ、あやにく、荒らか、うちつけ、うつくしげ、うとま
 しげ、大き、かたは、清ら、苦しげ、顯證、心殊に、心細げ、
 ことはり、細やか、騒騒しげ、騒がしげ、せち、たしか、た
 のもしげ、たまさか、静やか、清げ、つれつれ、清げなげ、
 憎げ、にはか、なほざり、のどか、恥づかしげ、はるか、人
 笑はえ、ほがらか、ほのか、まめやか、むつかしげ、ものあ
 はれ、めづらか、やすらか、らうたげ、うたて、とく、よく、
 いたく、いみじく、かしこく、こよなく、たとしへなく

「きはめて」幸ひなし、

「ことに」心細し、はなやか

「こよなく」騒騒し

「たぐいなく」おもひやる

「はなはだしく」おく(きをおく)

「またなく」をかし、あはれ

「よに」いみじ

「いささか」怠る、(しはぶきの氣色)す、(むかしのこち)す、(ひ

とごこち)す、まどふむ

「すこし」 うちまさる、うちわらふ、おちいる、くれる、食ふ、靜まる、給ふ、留むる、情あり、のどめく、離る、ひき出づ、日たくる、人ここちす、粉る、亂る、休まる、あやし、間近し、しばしば

「やや」 遠し、ひさし

「はつかに」 言ふ、通ふ、ためらふ、とまる、見ゆ

「いみじく」 いとなむ、忌む、うちとく、恨む、おひちらす、こちまさる、さくる、泣き泣き、泣く ののしる、ふく(風)、降る、笑ふ、嬉し、多し、おもしろし、悲し、くやし、暗し、苦し、氣疎し、心憂し、騒がし、ものかなし、あはれ、節會がち、ものあはれ、をこ

「落窪物語」

「いたく」 あはれがる、荒ばる、老う 書き削ぐ、かたひく、ごしが
る、しめやぐ、知る、(時雨)す、すぐだつ、つやめく、泣く、嘆く、悩む、はやる、更く、病む、酔ふ、よろし

「いと」 愛敬づく、うつくしがる、甲斐あり、興あり、酒樂る、忍ぶ、嘆く、悩む、はなやぎまさる、踏みふす、わろぶ、をかしがる、あいなし、あさまし、明し、赤し、わるし、あやし(心配)、あやし、あらまほし、ありがたし、あわたたし、いかんし、いそがし、(胸)痛し、いこほし、言ふ甲斐なし、今めかし、いみじ、憂し、うしろめたなし、薄し、うつくし、恨めし、うらやまし、嬉し、得まほし、恐し、多し、おぼつかなし、おもしろし、面立たし、香ばし、かしこし、堅し、難し、かたはらいたし、愛し、悲し、甲悲なし、聞かまほし、臭し、口惜し、くはし(丁重)、暗し、黒し、心地悪し、心憂し、心苦し、心づきなし、心憎し、心深し、心細し、心やすし、心弱し、濃し、戀し、騒 騒し、さかし、さがし、騒がし、痴れがまし、白し(色)、白し(潔白)、少なし、捨てさせまほし、俵し、せむかたなし、尊し、高し、たけし(丈夫)、頼もし、頼しげなし、近し、小さし、つ つまし、強し、辛し、嘆かせ、名高し、なつかし、なまめかし、悩まし、なれなれし、憎し、ねたし、ねふたし、はしたなし、恥し、腹立し、廣し、便なし、深し、本意なし、細し、貧し、まばゆし、見苦し、見まほし、むくつけし、賞でたし、めやすし、物愛し、ものし、ものものし、やすし、やんごとな

し、ゆかし、良し、弱し、らうたし、力かし、若し、ゆづら
 はし、わびし、わりなし(道理な)、わりなし(困る)、をか
 し、をこがまし、幼し、惜し、あはれ、あやにく、荒らか、
 ありし様なり、いみじげ、う たてげ、うつくしげ、大き、
 難げ、かたは、駕輿さげ、儀式こと、清げ、清ら、苦しげ、
 けうら、ここがち、心づきなげ、殊なり、異様、ことはり、
 細かなり、細やか、實法なり、少なげ、狭げ、祖相なり、確
 か、頼もしげ、たひらか、罪深か、つややか、つれづれ、
 つれなげ、時なり、長げ、なまめかしげ、惱ましげ、には
 か、のどか、恥づかしげ、はなやか、はるげ、非道なり、不
 便なり、猛なり、無徳なり、ものしげ、やすらか、ゆたか、
 よげなり、らうかげ、わりなげ、をかしげ、をこなり、あま
 た、うたて、とく、よく、いたく、いはむかたなく、いふか
 ひなく、いみじく

「いといと」 かしこまる、いかめし、嬉し、大き

「いともいとも」 いとほし、嬉し、

「いはむかたなく」 わびし

「いふかひなく」 笑ふ、誇る、ねたし

「いみじ」 いたはる、うつ、老う、怖づ、くねる、苦しがる、さいな
 む、幸ひあり、修理す、責む、懲ず、泣く、嘆く、悩む、
 ねたむ、のたまふ、のる(しかる)、腹立つ、譽む、申す、
 惑ふ、見る(かわいがる)、病む、笑ふ、酔ふ、あさまし、
 痛し、いとほし、嬉し、多し、おぼつかなし、おもしろ
 し、香ばし、悲し、愛し、臭し、口惜し、苦し、心悪し、
 心愛し、つつまし、辛し、なめかし、惜し、恥し、みぐる
 し、めでたし、もの騒し、よし、あてはか、清げ、人笑は
 れなり、をかしげ、とく

「かぎりなく」 おぼしまさる、かしづく、心のぶ、時めく、嘆く、
 喜ぶ、あいなし、いとほし、嬉し、賢し、愛し、心
 づきなし、頼みきこへ、をかしげ

「こよなく」 劣る、はなやぐ、勝る、見る

「ことに」 すぐる、みる

「たぐいなく」 きしづく、いみじ(忌む)、惜し

「たとしへなく」 かしづく

「ふたつなく」 かしづく

「またなく」 いたはる、いみじ(忌)、ねたし

「よに」 をかし

いみじく 表 3-③

動詞	4		3	13	8		19	37	84(55.6)
形容詞				3	2		16	32	53(34.0)
形容動詞	2			1			6	6	15(9.8)
副詞								1	1(0.7)

かぎりなく 表 3-④

動詞	3	1	3	3	5	2	19	26	62(72.1)
形容詞	2	1		1			2	13	20(22.1)
形容動詞	1							3	4(4.7)
副詞							1		1(1.2)

その他 いらなく動2, ことに動4形2形動1, あまり動1, かしこく動11, こよなく動6形1, いといと動1形2, たぐいなく動4形1, 世に似ず形1, いともいとも形3, きはめて形1, たとしへなく動1, 世に知らず動1形1, いはむかたなく形1形動1, はなはだ形1, はなはたしく動1, いふかたなく動3形4形動1, ふたつなく動1, 世に形4, いふかひなく動4形2, またなく動1形3形動1

すこし 表 3-⑤

動詞	3	1	3	3	5	2	19	26	62
形容詞	2	1		1			2	13	20
形容動詞	1							3	4
副詞							1		1

이 표에서 보듯이 「いと」가 수식하는 용언은 주로 형용사와 형용동사이고 동사는 거의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いたく」가 형용사 1例를 제외하고 모두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식하는 용언의 품사라는 점에서, 「いと」와 「いたく」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ひろげて御覽じて、いとあはれがらせたまひて、物もきこしめさす(竹取)

(46)-とありければ、いたうあはれがりたまふて、急ぎおはしましてなむ御覽じける(人和)

와 같이 「あはれがる」라고 하는 용언등은 양자에 공통적으로 수식된다. 결국 「いと」와 「いたく」가 수식하는 용언의 품사가 결정적으로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いみじく」와 「かぎりなく」도 「いたく」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 중 「その他」에서 하나로 묶어버린 그룹도 동사를 수식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かしこく, ことに, こよなく, たぐいなく, になく」가 많은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いと」이외의 程度副詞의 거의 대부분은 동사를 수식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いと」만이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いと」는, 程度副詞의 80%이상을 차지하는 中古時代の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사인 것이다. 「いと」의 이 성질이 程度副詞 그 자체의 성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いと」는 어느 작품에서나 많이 사용되고 여러가지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いと」이외의 程度副詞가 오히려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いたく」와 같은 성질을 가진 程度副詞가 필요한 이유는, 「いと」가 수식하기 어려운 동사가 있기 때문에 「いと」대신에 수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いといたく」와 같이 「いと」와 또 다른 한 개의 程度副詞가 겹치는 일이 있다.

(47)かの男、いといたううらみなどしければ、女いひたる(平中)

(48)神しへいといみじう鳴り、雨もいたう降りければ(伊勢)

(49)のうさんの君といひける人、淨藏とはいとになう思ひかはす仲なりけり(人和)

上記의 例가 두개의 程度副詞에 동사가 수식된 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程度副詞와 용언과의 접속에 중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47)의 경우 「いと」는 「いたく」라고 하는 부사를 수식한 것으로서 처리했다. 즉 「うらむ」는 「いたく」에 한해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작품의 필자는 「いと」를 이용하여 「うらむ」라고 하는 동사 그 자체를 수식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いと」와 「うらむ」사이에는 다른 하나의 부사를 끼워 버렸다. 어떻게 「いたく」를 끼워 넣고 싶었던 이유에서도 보듯이, 「いと」가 동사의 수식만큼은 꽤 어렸었던 면을 엿볼 수 있다.

程度副詞를 두개 겹치게 하여 단순히 程度가 심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いといと」, 「いともいとも」등의 語를 다용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いたく, いみじく」등의 접속의 힘을 기대지 않고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이 같이 「いと」가 다른 하나의 程度副詞와 겹친 例는 66例이다. 이 가운데 동사를 수식한 것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いと」가 동사를 수식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준 것은 「いたく」이다. 「いたく」가 동사를 전문적으로 수식하는 程度副詞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いと」가 동사를 수식하기 위하여 고용한 程度副詞인 「いたく」는 38例, 「いみじく」7例, 「かしこく」8例, 「になく」4例)

‘謙しさ小’를 보면 「すこし」에 수식된 용언가운데 사분의 삼이 동사임을 알 수 있다. 「その他」의 그룹에 수식되는 용언도 같은 경향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謙しさ小’의 程度副詞는 주로 동사를 수식시키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해도 좋을 듯 하다.

‘謙しさ大’에는 「いたく, いみじく, かぎりなく」등과 「すこし, いささか, はつかに」등을 들 수 있다. 이들 語는 ‘謙しさ大’, ‘謙しさ小’의 양쪽에 서서 상호관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いと」의 역할에 상당한 것이 없다. 억지로 찾아보면 「やや」가 해당되지만 그 용례는 아주 적다.

이와 같이 수식하는 용언의 품사에서 대개 세개의 그룹으로 분류

를 할 수 있고 이는 표4에 잘 나타나 있다.

표4. (*)는 용례가 적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

	주로 動詞에 접속하는 것	양쪽	주로 形容·形容動詞에 접속하는 것
甚 し さ 大	あまり(*),いらなく(*),かしこく,こよなく,たぐひなく,たとしへなく(*),いたく,になく,はなはだしく(*),ふたつなく	いみじく,いふかたなく,いふかひなく,かぎりなく,ことに,よにしらず(*),よになく(*)	いと,いといと,いともいとも,いはむかたなく(*),きはめて(*),またなく,よに,よににず(*)
甚 し さ 小	いささか,はつかに,しるしばかり(*),少し	少し	やや

4. 程度副詞에 수식되는 용언의 의미

표2를 토대로 각 程度副詞에 수식되고 있는 용언을 많은 순으로 보면

*いみじく

1. 泣く 14, 2. 悲し 11, 3. いたはる 4, 4. おもしろし 4, 5. あはれ・うらむ・多し・心憂し・騒し・まどふ・笑ふ 3, その他, 合計 153例

*すこし

1. よろし 5, 2. 賜ふ 3, その他, 合計 87例

*いたく

1. 降る 14, 2. 泣く 7, 3. あはれがる 6, 4. 更く 6, 5. す 4 (時雨, 化粧, 咳, 長雨), 6. 老う・嘆く・賞づ 3, その他, 合計 95例

*かぎりなく

1. うれし 5, 2. 喜ぶ 4, 3. 悲し 4, 4. 賞づ 3, その他, 合計 47例

*いと

1. あはれ 74, 2. よし 49, 3. をかし 46, 4. あやし 43, 5. うれし 42,

6. 悲し 36, 7. 清げ 33, 8. 多し 30, 9. よく・悪し 29, 11. 苦し
28, 12. いみじ(忌)じ 27, 13. おもしろし 26, 14. わびし 20,
15. をかしげ 17, その他 合計 1387例

이 순위표를 보면, 「いたく」에는 '降る, 更く' 등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いみじく」에는 'なく, 悲し' 등이 있고, 「かぎりなく」에는 '嬉し, 喜ぶ'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두드러진다. 각 程度副詞과 수식하는 용언과의 사이에 특별한 관계는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降る, 更く'는, 「いたく」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수식되고 있다. '降る'가 7例중 14例이고, '更く'는 6例 모두가 「いたく」에 의해 수식되고 있다. '清げ'는, 「いと」에 의해서 33例가 수식되고, 다른 程度副詞에 수식되는 일은 드물다. 반대로, 모든 程度副詞에 수식되는 용언의 대표로서 'かしづく'가 있다. 전부해서 7例밖에 없는데도 6 개의 程度副詞에 붙어 있다.

- (50) 落窪の後とつけられて, 中の劣にて, うらはめられてありけるものを, か類なく思しかしづくこそあやしけれ.(落窪物語)
(51) かくて, たとしへなく思ひかしづききこえたまふ(＃)
(52) 八つにて, いみじうをかしげなむおはしければ, 今より二つなくかしづきたまふ(＃)
(53) 限りなくかしづきたまふほどに, はかなくて年もかへりぬ.(＃)
(54) 近江の介平の中興が, むすめをいといたうかしづきけるを.....(大和物語)
(55) この女はになくかしづきて, みこたち, 上達部よばひ給へど....(＃)

이처럼 「落窪物語」중에서 'かしづく'는, 작자에게 있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진 어휘였음을 알 수 있다. 용례 (50)~(53)처럼, 「類なく, たとしへなく, ふたつなく, 限りなく」라는 4例에 의해서 수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いと, いたく, いみじく」라고 하는, 中古時代를 대표하는 程度副詞에는 수식되고 있지않다. 누군가가 사용하여 귀에 익숙해져버린 평범한 程度副詞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비교적 단조로운 程度副詞를 찾아내어 시행착오를 거듭

하면서도 文을 만들어 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계모에 의해 학대당하던 落窪의 君이 마침내 신분이 높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된다는 物語답게, 'かしづく'행위는 求愛를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각 程度副詞는 어떤 용언의 수식을 特意분야로 여기고 있는가를 본다. 앞에서는 수식하는 용언의 품사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각 품사를 의미별로 세분화하고 표에 의하여 추측해 보기로 한다. 우선 동사를 다음과 같은 세 그룹으로 나눈다.

- A. 사람의 감정이나 감정이 직접 미친 반응 — '泣く, 嘆く, 悲しむ, 喜ぶ, 笑ふ'類
- B.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행위 — 'かしづく, 舐む, 契る, 騒ぐ'類
- C.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고, 자연의 힘이나, 주위 사람의 힘이 미친 작용 — '更く, 降る, 老う, 懸賞す'類

A타입의 용례

- (56)燈の暗きかたに向きて、いみじう泣けば、小將あはれにこと、りにて....
(落窪)
- (57)二十七日、風吹き波荒ければ、船出ださず、これかれ、かしこく嘆く。(土佐)
- (58)その音を聞きて、童も媼も、いつしかとし思へばにやあらむ、いたく喜ぶ
(“)

B타입의 용례

- (59)この三君を、また二つなくもてかしづき奉る。(笠)
- (60)(樂を)「御心地悪しからむものぞ」とて、持てよりたれば、いささかなめたまひて...(竹取)
- (61)限りなく契りて、思ふことをもいひかはしけり(大和)
- (62)親、氣色見て、いみじく騒ぎののしりければ...(平中)

C타입의 용례

- (63)ほかにて酒などまいり、酔ひて、夜いたくふけてゆくりもなくもの し

たまへり.(大和)

(64)二日ばかりありて、雨いたく降り、東風はげしく吹きて、.....(蜻蛉)

(65)「牛弱くは、面白の駒にかけかまへ」とのたまふ聲、いと愛敬づき てよしあり.(落窪)

(66)いといたう人人懸賞しけれど、思ひあかりて男などもせでなむありける.(大和)

이것을 기준으로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5. 程度副詞에 수식된 A,B,C분류표

いと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	1				7	10(17.5)
B	3	1	2	3	3	1	7	6	26(45.6)
C	1	0	1	5	1	0	7	6	21(36.8)

いたく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3	2	7	8	4		1	11	36(38.3)
B	2	3	1	2	1		3	2	14(14.9)
C	1		1	7	1		23	11	44(46.8)

400 인문학연구 제3집

いみじく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笠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4		2	7	2		10	10	35(41.7)
B				4	5		6	16	31(36.9)
C			1	2	1		3	11	18(21.4)

かぎりな く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笠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2	1			7	7(62.5)
B				4				1	5(31.3)
C								1	1(6.3)

その他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笠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4			1	2	8(17.0)
B	3		3	6	2	1	2	6	23(48.9)
C		2	1	2		2	3	6	16(34.0)

少し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		2(3.3)
B			2	2	1		5	14	24(39.3)
C	2	1	1	1	4	1	13	12	35(57.4)

その他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	2(8.3)
B	1	1			1		4	4	11(45.8)
C	1	2			1	1	6		11(45.8)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우선 「いと」를 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사를 수식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을 보면, A타입의 동사가 적고, B타입의 동사가 많은 듯 보이지만, 원래 용례가 적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總語數에서 보면 B타입이 많은 듯이 보이지만, 실은 '忍ぶ'라고 하는 동사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忍ぶ'는 전부해서 15례이고, 그 용례를 모두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67)皇子, 「いと忍びて」とのたまらはせて, 人もあまた率ておはしまさず.(竹取)
- (68)心もとながりて, いと忍びて,ただ舍人二人, 召繼として...(〃)
- (69)車の五條わたりに, いと忍びていきけり.(伊勢)
- (70)~といひければ, 女, いと忍びて,ものごしにあひにけり.(〃)

- (71) いと忍びておはしまして,志賀にほうづる女どもを見給ふこきもあり
けり.(大和)
- (72) これはいとしのびてあることなれば,えいきもとふらひ給はず.(＃)
- (73) この男,親近江なる人に,いとしのびてすみけり(平中)
- (74) 「この人につきて,いと忍びてものしたまへ」(＃)
- (75) いとしのびて,まだ夜ぶかく,出でにけり.(篁)
- (76) かうものはかなき身の上も申さむ,などさだめて,いと忍び,あるところ
にものしたり.(蜻蛉)
- (77) われは人の詣づめるところあめるに,いと忍びて出でたるに,書つかた
歸りたれば...(＃)
- (78) 門をみそたにあけさせたまひて,いと忍びて出でたまひぬ.(落窪)
- (79) 一つ持ちたりけるを,いと忍びて奉るとても(＃)
- (80) 小將,いと忍びておはしにけり.(＃)

이상이 「いと」에 수식된 '忍ぶ'이다. 이와같이 텍스트로 채택한 작품 모두에서 보였다. '忍ぶ'가 「いと」이외의 程度副詞에 수식된 例는 한개도 없다. 「いと」와 '忍ぶ'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듯 하다. 더우기 15例 모두 「いと」가 '연용형+て'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다.

「いたく」는 B타입이 적고, 감정을 나타내는 A타입과, 자연작용을 나타내는 C타입이 많다. 「いたく」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蜻蛉日記』이다. 27例 모두 들어보면,

- (81) ~と,いたうかしこまりたまはりぬ」とのみあり.
- (82) 三日といふに,京に着きぬべけれど,いたう暮れぬとて, 山城の國久
世の三宅というところにとまりぬ.
- (83) それになほしもあらぬやうにあれば,いたく氣色ばみ立てり.
- (84) なりをうち見れば,いたうしほなえたり.....
- (85) 日ごろなやましうて,咳などいたうせらるるともののににやあらむ
- (86) ついたちかけて長雨いたうす.
- (87) 聲いといたうつくろひたなりと聞けば,われもいと苦し.
- (88) いとことわりと言ひなりて,いといたく泣く.
- (89) 雨いたく降り,神いといたく鳴ると,胸塞がりて嘆く.
- (90) さし歩みなどしたまへるさま,いたう似たまへるかなと思ふに....
- (91) 返りごと,たびごとにしもあらぬに,いたうはばかりたり.

- (92)今日の書つかたより、雨いといたうはらめきて...
- (93)かしこになむと聞くにも、たよりにもあるを、さもやと思ふほどに 夜いたく更けゆく。
- (94)～といひつつ、いたう更けぬれば...
- (95)「いたう更けぬらむを、例はさしもおぼえたまふ夜になむある」
- (96)京のはてなれば、夜いたう更けてぞたたき來なる。(とぞ本に)
- (97)雨いたく降りて、ながむるに....
- (98)二日ばかりありて、雨いたく降り、東風はげしく吹ちて....
- (99)「雨もやいたく降りはべると思へば、神の鳴りつる音になむ....」
- (100)三四日になりぬれど、おとなくて、雨いといたく降る日...
- (101)いといたく降れば、障らむにもことはりなれば、昔はとばかりおぼゆるに...
- (102)六月ばかりかけて、雨いたう降りたるに、たれも降りこめられたるなるべし。
- (103)四日に雨いといたう降るほどに、助のもとに...
- (104)～といはせて、しばしあるほどに、雨いたう降りぬ。
- (105)いといたく度せたまふを見るなむといみじき。
- (106)ありしよりもいたうわづらひまさると聞けば、ひとしごと

『蜻蛉日記』의 27例의 동사 가운데, C타입이 실로 23例이다.

이것만 보면 「いたく」는 자연작용을 나타내는 C타입의 동사를 수식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竹取物語」 『土佐日記』 『伊勢物語』 『平中物語』에서 볼 수 있는 「いたく」는 동사의 타입이 틀리므로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

- (107)～と殿に告げやりて、いといたく苦しかりたるさましてたまへり。
- (108)御身の化粧いといたくして、やがて泊りなむものぞとおぼして....
- (109)八月十五日ばかりの月にいでいて、かぐや姫、いといたく泣きたまふ。
- (110)燕尾をささげて、いたくめぐるに合はせて、手をさげてさぐりたまふに....
- (111)くらつまるのかく申すを、いといたくよろこびてのたまふ。
- (112)「人ないいたくわびさせたてまつらせたまひそ」といひて....
- 以上、(竹取)
- (113)今夜、船君の病起りて、いたく情む。
- (114)この間に、風のよければ、拙取りいたく誇りて...

- (115) 이것이中に, 心ち惱む船君, いたく賞でて....
- (116) ~といひてありければ, いといたく賞でて, ゆく人のよめりける.
- (117) その音を聞きて, 童も媼も, いつしかとし思へばにやあらむ, いたく喜ぶ. 以上 「土佐」
- (118) ~とよめりければ, 親王, いといたうあはれがりたまうて...
- (119) かの子, いたううち泣きてよめる.
- (120) むかし, 男, 女をいたう恨みて...
- (121) 「忘れやしたまひにけむといたく思ひわびてなむはべる」
- (122) ~とよめりければ, いといたう心やみけり.
- (123) なによりてか, かからむといといたう泣きていづかたに求めゆかむと...
- (124) 御聲はいと尊くて申したまふを聞きて女はいたう泣きけり.
- (125) 男, いといたう泣きてよめる...
- (126) 神しへいとみじう鳴り, 雨もいたう降りければ...
- (127) 男, いといたうめでて, いままで巻きて文箱にいれてありとなむいふなる.
- (128) さはることのありければ, えいきで, いたう思ひいとほしがりて...
- (129) いといたう, おのがどちいひあはれがりて....
- (130) かの男, いといたううらみなどしければ, 女いひたる.
- (131) ~のみありければ, 男, いたく思ひくちをしがりて...
- (132) いたく人につつむ人なりければ, わづらはしとて, 男, やみにけり.
- (133) 雨のいたう降りて, ながめいたるに, 友だちのもとより, かくぞいひたる. 以上, 「平中」

이와같이 네 작품에서 계 26예를 들었는데, C타입으로 분류되는 동사는 (110)의 'めぐる'와 (126)(133)의 '降る'등 3예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A타입의 동사는 17례이고, 이것으로 봐서 「いたく」는 오히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수식하는 程度副詞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蜻蛉日記』에 있어서 「いたく」는, 본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을 수식해야만 할 곳에서 자연의 작용을 수식시킨다고하는 아주 참신한 용법을 가진 程度副詞인 것이다.

'甚しき小'인 程度副詞를 보면, 「すこし, いささか, はつか」類의 어휘가 감정을 나타내는 A타입의 동사를 수식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4예밖에 없고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34) 「思ひこさなや」とて、すこし心きけて... (篁)
 (135) ~などいへば、すこしうち笑ひて、よきほどにうちそよめきて入りぬ。
 (蜻蛉)
 (136) この君にいささか心寄せあらむ人人ばねたきものに言ひののしりし
 を見ならひたるに... (落窪)
 (137) わづかにためらひて、「いみじうくやしう、人に言ひ妨げられて」
 (蜻蛉)

앞에서 상호관계에 있다고 생각된 「いたく, 이미じく」를 「すこし, 이ささか, はつかに」 대신 문에 삽입해도 문은 성립한다. 그러나 「いたく, 이미じく」가 많은 A타입의 문을 수식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때, 수식하는 語의 의미로서는 상호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甚しさ小'인 程度副詞는 C타입의 동사를 많이 수식하기 때문에 다음의 예를 들어 본다.

- (138) 神さへいと いみじう 鳴り、雨も いたう 降りければ... (伊勢)
 (139) 十一日、雨いささかに 降りて、止みぬ。(土佐)

이 두 개의 용례처럼 비가 세게 내리면 「いたく」이고 작은 비일 때는 「いささか」로 표현하여 상호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있다. 대개 사람의 감정에 대하여 「いたく, 이미じく, かぎりなく」로 나타내는 것은 있어도, 「すこし, 이ささか, はつかに」로 나타내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 것이다.

동사를 삼분류한 것에 이어, 형용사와 형용동사에 대해서도 분류해 본다. 그러나, 동사와 같이 세 개로 분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 기준에 의해 두 개로 나눈다.

a.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 — 'うれし, 悲し, あはれ, 心殊に' 類

b. 사람이나 물건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 '明し, うつくし, 清げ, 静か' 類

형용사는 ab, 형용동사는 a`b`로 나타낸다⁴⁾.

4) a는 감정, b는 상태를 나타낸다.

a타입의 용례

(140) 男、いとうれしくて、わが寝る所に率て入りて...(伊勢)

(141) いみじう悲しくて、泣く泣くくへりにけり。(大和)

a`타입의 용례

(142) 男、いとあはれと思ひて、またものいひ入りむと思へど...(平中)

(143) ここはいと心ことに見ゆれば、兼卷きあげて...(蜻蛉)

b타입의 용례

(144) 間をうかがひて、月のいとあかきに、女ども集まり来て...(平中)

(145) 昔、大納言のむすめいとうつくしうてもち給うたりけるを(大和)

b`타입의 용례

(146) いと清げに寢殿作りてよき日して呼び給。(篁)

(147) 「物知らむこと、なのたまひそ」とていみじく静かに、朝廷に御文まふ。(竹取)

a타입인지 b타입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148) その家の前に、さくらのいとおもしろくきて、春のはてかたにやありけむ...(平中)

(149) 習はし置いたまひけるままだ、箏の琴を世にをかしく弾きたまひければ...(落窪)

이같은 'おもしろく,をかしく'등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b타입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다음 표로 나타내었다.(형용동사는 용례가 적기 때문에 생략함)

표6. ab.a`b`의 작품별 용례 語數

いと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비율)
a	2	4	11	40	6	4	94	174	340(37.4)
b	14	9	27	68	24	9	184	233	568(62.6)

いたく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b								1	1(100)

いみじく	竹 取 物 語	土 佐 物 語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		12	20	34(64.2)
b				2	1		4	12	19(35.8)

かぎりな く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2	8			1	8	20(71.4)
b			2	3			1	2	8(28.6)

その他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	4	10	15(50.0)
b	1	2	2			2	7	1	15(50.0)

すこし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	2	4(21.1)
b	1	1		1			1	11	15(78.9)

その他	竹 取 物 語	土 佐 日 記	伊 勢 物 語	大 和 物 語	平 中 物 語	篁 物 語	蜻 蛉 日 記	落 窪 物 語	수 (비율)
a			1						1(12.5)
b			1		1		3	2	7(87.5)

a타입 형용동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いと」와 「すこし」이다. 「いみじく,かぎりなく」의 용례가 적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표에서도 「いと」와는 다른 성질을 나타내었다. 「いと」와 「すこし」만이 감정을 나타내는 語의 비율이 적은 것은 동사의 A·B·C분류표와 같다. 동사의 A타입, 형용사의 a타입, 형용동사의 a'타입은 품사만 다르지 감정을 나타내는 면에서는 동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야말로 다른 程度副詞와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다. 앞에서 「いと」이외의 程度副詞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いと」가 접속하기 어려운 용언에 대신하여 접속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いと」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いたく」나 「いみじく」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도 앞에서와 꼭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いと」가 잘 결합하는 분야는 다른 程度副詞에는 필요없고 잘 안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程度副詞가 소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中古時代の 제일의 程度副詞는 「いと」인 것이고, 그 「いと」와 주고 받는 관계에 있는 程度副詞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いと」가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程度副詞가 나타나는 효과를 재촉시켰던

것이다.

5. 새로운 程度副詞

앞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의 그룹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용언에는 품사의 틀을 뛰어넘는, 의미에 의한 그룹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예를들면, '泣く, 悲し, あはれ' 등과 같은 것이다. 여러가지 분류 방법은 있겠지만, 여기서는 [좋은 image]와 [나쁜 image]로 나누어 서술한다. 좋다 혹은 나쁘다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밝은 것, 즐거운 것, 상냥한 것'은 前者로 하고 '어두운 것, 슬픈 것, 냉정한 것'을 後者로 생각한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므로, 확실한 수치는 나타내지 않겠다. 이같은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이 논문을 쓰면서, [좋은 image] [나쁜 image]중 어느쪽인가 한쪽만을 수식하는 程度副詞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단 용례가 희소한 것은 예외)

'嬉し'때에도, '悲し' 때에도, 「いと」에 수식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비교적 단조로운 程度副詞도 그렇다. 예를들면, 道綱의 母親에 의해 쓰여진 「蜻蛉日記」의 「いふかたなく」는 이 작품에서 밖에 볼 수 없다. 작자의 경향이 반영된 듯한데,

(150)助, いふかたなく重くゆづらふ.

(151)とまる人はまいて, いふかたなく悲しきに, 「時たかひぬる」と...

(152)雪風いふかたなう降り暗がりて, わびしかりに...

(153)いふかたなう心憂しと思へども, なにわぎをかはせむ.

(154)志賀の山をしりへに見たるところの, いふかたなう心細げなるに...

(155)被へなどいふところに, 垂氷いふかたなうしたり.

(156)霧の下より例の綱代も見えたり, いふかたなくをかし.

'重し, 悲し, 暗がる, 心憂し, 心細げ'등 [나쁜 image]의 용언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をかし'라고하는 용언도 수식해 버린다. 게다가 「いふかたなく」는, 동사 4例, 형용사 3例, 형용동사 1例등 모든

품사에 접속시켜버리는, 품사에 관계없이 마구 사용해도 좋을 듯한 程度副詞였던 것 같다.

하나의 작품에서 밖에 볼 수 없는 程度副詞로서, 『大和物語』의 「になく」를 들 수 있다. 「いふかたなく」와는 다르고, 이것은 다음의 예처럼 동사밖에 수식하지 않는다.

(157) のうさんの君といひける人, 淨藏とはいとになく思ひかはす仲なりけり.

(158) この女はになくかしづきて, みこたち, 上達部よばひ給へど...

(159) 半中色好みかかりて, になく懸想しけり.

(160) 人びともよく酔ひたるほどにて, 酔ひ泣きいとになくす

(161) ~とてなむやり給へりければ, いとになくめでて, のにまでなむ語りける.

(162) ~とよみたりければ, になくめで給ひて, 御返し...

(163) ~とよめりければ, いとになくめで給ひけり.

'思ひかはす, かしづく, めづ'와 함께 [좋은 image]의 용언에 섞여서 '酔ひ泣きず'가 나타나고 있다. 용언의 image가 어떻든 수식되어 버리는 것이 程度副詞의 특징인 듯 하다.

程度副詞도, 본래는 독창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いみじ」는 '忌む'에서 온 것이고, 「かしこく」는 '靈力などに對する畏怖'이다. 程度副詞의 거의 대부분은 이같이 그다지 [좋은 image]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語源을 갖는 程度副詞가 [좋은 image]의 용언을 수식하는 것도, 程度副詞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かしこく」의 경우,

(164) 男はうけきらはず招び集へけ, いとかしこく遊ぶ.(竹取)

(165) いとかしこくたばかりて, 難波にみそかに持いでぬ.(#)

(166) ~これかれ, かしこく嘆く(土佐)

(167) 昔, 男女, いとかしこく思ひかはして, こと心なかりけり.(伊勢)

(168) 女を思し召して, いとかしこく惠みつかう給ひけるを(#)

(169) ~とよみて奉りたりければ, いとかしこくをかしがり給ひて(#)

(170) 帝はいかかおぼしめすらむなど, いとかしこく思ひなげき給ひけり.(大和)

- (171)おなじ帝,狩いとかしこく好み給ひけり.(〃)
 (172)~とよみたりければ,いとかしこくめで給ひて,かづけ物給ふ.(〃)
 (173)~といふ時に,いとかしこくよろこびあへり.(〃)
 (174)もうでたりける,いとかしこうよろこびて,ことのついでに(蜻蛉)

遊ぶ, 思ひかはす, 恵む, をかしがる, 好む, めづ, よろこびあふ, よろこぶ 등이 [좋은 image]의 그룹에 넣어도 좋을 것이다. 11例 중 8例에 이들 용언이 있는 것이므로, 거의 「かしこく」의 語原의 image는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怖れ, 畏敬の念'이라는 의미로 볼 때, 中古時代에서도 같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을 것이므로 「かしこく」는 程度副詞로서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나쁜 image]의 程度副詞가 [좋은 image]의 용언을 수식하는 것도 中古時代 및 그 이전시대부터 상식이었으므로, 현재 잘 통용되고 있는 'すごくやさしい' 등의 용법도 당연히 옳다는 생각이 든다. 「すごく」대신에, 「とても」 「すこぶる」 등의 程度副詞를 사용했다 하여도 결국은 그 사용법이 같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이제까지 中古時代의 程度副詞를 각 용례와 표를 통하여 보았는데, 「いと」를 중심으로 「いたく」 「いみじく」 등의 어가 균형있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면이 희미하게나마 증명이 되었을 듯 하다. 각 程度副詞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本稿의 테마였지만, 용례수에 너무 흠이 있어, 순수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금후 과제로서 하나의 語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고 싶다.

참고문헌

- 山口仲美, 「平安假名文における形容詞・形容動詞」(『國語語彙史の研究(一)所收』), 和泉書院, S55
森重民, 「程度量副詞の設定」, 國語國文, S40
松井榮一, 「近代口語文における程度副詞の消長」
井上博嗣, 「古代語における程度副詞」, 清文堂, 1994

사용문헌

- 井上信男編, 「九本對照竹取翁物語語彙索引」, 新典社, S61
松尾聰・江口正弘編, 「落窪物語總索引」, "
佐伯梅友・伊牟田經口編, 「かげろふ日記總索引」, "
西端幸雄・木村雅則, 「歌物語・合語彙索引」, "
國立國語研究所, 「形容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秀英出版,
S62
國立國語研究所, 「分類語彙表」, 秀英出版, S39